

일본 「지적재산추진계획 2011」 발표

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(본부장: 野田佳彦 총리)는 디지털·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시장에서 향후 10년~20년 뒤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비한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4개의 지적이노베이션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한 「지적재산추진계획 2011」을 발표

□ 국제표준화의 Stage Up 전략

- (중점시책) 국제표준화전략 실행, 국제표준화활동의 활성화, 인증의 전략적 활동촉진 및 연구개발단계에서 표준화활동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
- (지표) 국제표준화전략내 로드맵에 제시된 행동계획을 이행하여 각 특정전략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‘20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의 간사국 인수건수 증가 (74건 → 150건)
 - ※ 7개 국제표준화전략 분야 : ①선진의료, ②물(산업), ③차세대자동차, ④철도, ⑤에너지매니지먼트, ⑥콘텐츠미디어, ⑦로봇
- (기대효과) 연구개발·사업화전략과 연계한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, 지적재산의 획득·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제표준화 특정전략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획득

□ 지적이노베이션 경쟁전략

- (중점시책) 지적재산권시스템의 경쟁력강화, 일본이 창출해내는

‘지식’의 활용 촉진 및 글로벌 디지털·네트워크시대에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·확보

- (지표) 국제특허 출원에 있어서 일본이 국제조사를 관할하는 국가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제특허를 저비용·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정비로 해외출원 비율 제고
- * ‘20년까지 해외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사용가능 비율 제고 (약 70% → 90%)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출원 건수 증대(약 0.8만건 → 1.2 만건)
- (기대효과) 지적재산활용을 촉진하여 세계에 앞서 신규사업을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틈새선도(nitch top)사업을 다수 배출

□ 최첨단 디지털·네트워크전략

- (중점시책) 콘텐츠의 전자전달을 촉진하고 일본의 지적자산을 디지털·보존(전자서적 등)하여 활용, 디지털화·네트워크화 추진기반의 전략적 정비, 국제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인재육성의 근간이 되는 창작기반 강화
- (지표) 서적, 방송프로그램의 80%정도를 전자매체로 송신하고 저작권침해 콘텐츠의 유통량을 80%정도 줄임
- (기대효과) 디지털·인터넷 콘텐츠사업(신규사업 포함)의 시장 규모가 약 1.4조엔(‘08) → 약 7조엔(’20)으로 증가

□ 쿨재팬(Cool Japan) 전략

- (중점시책)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의 콘텐츠, 패션, 상품, 음식, 전통문화, 디자인 등 ‘Cool Japan’를 추진하여 일본의 경제성

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, 쿨재팬의 발굴·창조, 쿨재팬의 전세계로의 발신, 쿨재팬의 인기(몰이) 확대, 쿨재팬의 기반정비 및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기반을 강화

- (지표) 현재 방문외국인 수 약 861만명('10) → 2500만명(' 20)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방문외국인 수 약 6.5만명('10) → 30만명(' 20)으로 각각 증대
- (기대효과) 쿨재팬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약 4.5조엔('09) → 17조엔(' 20)으로 확대

□ 시사점

-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면서 사업에서 패하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제표준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7개 분야로 집중시킨 일본의 국제표준화전략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므로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
- 세계의 우수한 기술인재를 도입하여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핵심인 지적재산권시스템을 글로벌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려고 함
-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초대형재난 등의 위기관리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해진 최첨단 디지털·네트워크를 둘러싼 경쟁을 해쳐나가기 위한 전략구축과 기반정비 필요
-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‘쿨 재팬’을 일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지적자산을 발굴·창조해 내기 위해 국민 일체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

자료 : 內閣府, 知的財産戰略本部 (2011. 6)